

신당, 공천 '칼바람' 부나

대통합민주신당의 공천심사위원장이 박재승 전 대한변협 회장이 물갈이 공천을 시사하고 손학규 대표가 이에 힘을 실어주면서 신당 내에 공천 칼바람이 예고되고 있다.

박 위원장은 3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육을 얻어먹기 위한 자리다. 국민의 뜻을 최고 가치로 알고 인물을 뽑으면 공정성은 담보될 것이다. 하늘과 역사만 보고 가겠다"며 "지금 계파를 따지고 할 상황이 아니다. 현역 의원이라도 자신보다 훌륭한 사람이 있다면 (총선에) 나가지 않는 자제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합민주신당 손학규 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을 위한 공천을 위해 공천심사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보해 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대해 당 지도부부터 초선까지 힘을 실어주면서 잔뜩 기대하는 분위기가 있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정한 공천이야말로 신당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심위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해 독립성의 보장, 외부인사 과반 임명, 공심위원장 주도하의 외부인사 선인 등 3가지 원칙을 지키겠다"고 박 위원장에 힘을 보탰다.

박재승 "국민 뜻이 공천 기준" 물갈이 예고 설 연휴전 '공심위' 구성...현역들 위기감 고조

전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으며 이들 중 일부는 '공천혁명'이 불발에 그칠 경우 탈당, 불출마 등을 통한 정치활동 중단까지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다. 현실 정치 경험이 없는 박 위원장이 복잡한 당내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칼을 들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다. 특히 당내 역학관계에 어두운 박 위원장이 '호남 물갈이' '수도권 징발' '친노(親盧) 배제' 등 다양한 총선 전술 및 전략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효과적 공천을 할 수 있을지가 우려스러운 것이다.

더욱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차남인 김홍업 의원과 목포 출마 의사를 밝힌 김 전 대통령 측 박지원 비서실장, 정대철 교문을 비롯해 김원기·정동영·김근태·전정배·신기남 의원 등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 실패 책임자에 대한 처리도 골칫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세부 공천기준을 마련하는 것부터가 만만치 않다. 박 위원장은 일단 공천기준과 관련, 당 해산안과 당헌·당규, 국민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천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원칙적인 입장만을 밝혔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벌써 대선패배

책임자, 비리연루자 등은 공천에서 배제돼야 한다며 구체적인 배제 기준이 거론되고 있다. 민생쇄신모임은 뇌물죄와 정치관련법을 위반해 유죄 판결을 받은 부패 비리자, 국정 실패 책임자에 대한 구체적 범위를 공심위가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국민의 뜻과 호남민심 두 가지를 다 고려해야 한다. 충분히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심재민 前 광주부시장 광산 출마 선언

4·9 총선 현장

○심재민 전 광주시 행정부시장이 30일 광주시의회 기자실에서 광산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표발같이 본격화.

행정고시를 거쳐 광양군수와 내무부 재정경제과장, 국민고충처리위 상임위원 등을 역임한 심 전 부시장은 이날 "오욕과 혼돈의 정치판에서 한 송이 예쁜 꽃을 피우겠다는 심정으로 출마를 결심했다"며 "실천하는 합리주의자로서, 30여년 공직생활에서 축적한 경험과 전문성을 광주시와 광산구의 발전을 위해 쏟아 붓겠다"고 강조했다.

정기남씨 광주 남구 선거사무실 개소

○광주 남구에 출사표를 던진 정기남 예비후보가 30일 남구 진월동 경남빌딩 3층에 선거사무실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

정 예비후보는 박명광 대통합민주신당 최고위원과 정동영 전 장관의 부인 민혜경씨를 비롯 500여 명의 정치권 인사와 지인이 참석한 이날 개소식에서 "새로운 시대에는 젊고 강력한 정치전문가가 필요하다"며 "통합과 당 혁신의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광주의 자존심을 되찾는 것은 물론 새 희망의 싹을 보여드리겠다"고 다짐.

최시영씨 강진·완도 예비후보 등록

○최시영 전 전남일보 편집국장이 지난 28일 강진·완도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표발같이 본격화.

지난 대선에서 대통합민주신당 중앙선대위 조직위 부위원장으로 활동했던 최 예비후보는 "한국의 새로운 정치, 한국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젊은 정치를 찾아 항해를 시작하고자 한다"며 "더불어 함께 사는 통합의 정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선언.

강기정 의원 현직 '수성' 본격 돌입

○강기정 의원이 30일 선관위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수성을 위한 표발같이 돌입.

강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의 참패로 민주당부 10년의 역사를 지켜내지 못한 점을 사죄드린다"면서 "4년간의 검증된 의정 활동을 바탕으로 서민을 불안케 하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에 맞서면서 국민과 소통하고 중앙과 지역을 연결하는 가고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정성 원장 "통일부 폐지 안된다"

○총선에서 광주 남구 출마가 거론되는 서정성 아 이안과 원장은 30일 광주YMCA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통일부 폐지 방침과 관련,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해서 통일부를 쉽게 폐지하는 것은 역사적 특수성에 대한 무지함을 스스로 드러내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대북 지원사업과 관련,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실시하되 개발 지원 사업으로의 정책 전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제안.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호남 기득권 연연, 박상천 대표 사퇴하라"

김경재 前의원 등 일부 비대위 구성해야

신당과 통합 지지부진 민주당 '내외외환'

민주당이 내외외환에 시달리고 있다. 신당과의 통합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당내에서는 박상천 대표의 사퇴와 비상대책위 구성 요구가 터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30일 김경재 전 의원 등 민주당 일부 지역위원장 및 당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당의 전면적 쇄신과 재정과와 연대를 통해 다가오는 총선에 임해야 한다"며 "오늘의 사태를 초래

한 박상천 대표 등 당 지도부는 즉각 사퇴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박상천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쇄신과 변화를 바라는 당원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호남 일부의 기득권에 연연하는 구태를 보여주고 있다"며 "박 대표는 자신의 유임을 대가로 도입한 공동대표제 시행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비난

했다.

신당과의 통합 문제와 관련, 이들은 "아직까지 통합논의가 원점을 맴돌고 있고 그 와중에 박 대표가 최근 몇 사람의 공천을 보장하라는 명단이 오갔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결국, 이번 통합제정이 시간벌기용이자 측근 몇 사람 살리기용 귀착될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당의 통합 논의는 아직도 별다른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총선 전 통합은 사실상 어려운 것 아니냐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한나라당 '공천 갈등' 일촉즉발

親朴의원 35명 '김무성과 함께...' 집단탈당 시사

강재섭 대표도 '공심위' 방침 반발, 중진회의 불참

한나라당이 공천 문제로 또다시 내홍에 빠졌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측이 공천심사위원회(이하 공심위)와 함께 공천 주도권을 행사하며 물갈이 태세를 보이자 30일 박근혜 전 대표와 강재섭 대표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이번 갈등은 전날 공심위 간사인 정종복 의원이 '부패 전력이자 대해 공천신청자격을 불허한다'는 공심위의 방침을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강재섭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 불참했다. 강 대표는 "정치라는 것이 당헌·당규의 해석을 떠나 서로 신의를 지키는 것"이라며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대표는

사퇴 등 거취 문제까지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강 대표의 불참으로 긴급 비공개 간담회로 진행된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김무성 최고위원은 격양된 표정으로 회의 도중 자리를 박차고 나와 기자들에게 "당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며 "이명박 정부의 새출발을 위해 모든 것을 협조했는데 결국 이렇게 토사구팽당했다"며 "공천심청조차 못하게 하는 것은 준비된 정치 보복"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하겠다는 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나라당 친박계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 직후 모임을 갖고 김

최고위원과 정치적 운명을 같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친박계 이해훈 의원은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오늘(30일) 국회 본회의가 끝난 후 친박계 의원들이 모여 김 최고위원과 정치적 운명을 같이하기로 뜻을 모았다"면서 "27명이 회의에 참여했고, 모임을 가졌다는 연락을 받고 8명이 전화로 이름을 넣어달라고 해 도합 35명이 됐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천신청자격의) 적용기준 자체가 모호하다"면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입맛에 맞춰서는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공심위원이 이명박 사무총장은 "공심위의 과정에서 당규를 뛰어넘는 해석이 어떻게 가능하며 당규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배했다"고 전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